

주요 내용

■ 금융산업의 미래와 구조조정 ■

□ 99년도 금융시장의 특징과 구조조정 성과

- (저금리 기조와 주가 상승) 98년 중반 이후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증시 활황을 통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구조조정 성과) 99년 중 건전성 감독 제도의 강화, 금융의 증권화 촉진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98년에 이어 계속 보완됨
- (99년도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 年中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유상증자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하반기들어 은행 차입 의존도가 증가세로 반전됨

□ 2000년도 전망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색) 금융의 사이버화, 대형화 등이 진전될 것이며,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구조 재편 가속화
 - (은행권의 구조재편 촉발) 초대형 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이 예상됨
 - (비은행 금융권의 구조재편) 겸업화와 신시장 도입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 (투신사 구조조정) 상반기중 본격적인 투신 구조조정의 강도가 확정될 전망이며, 채권시가평가의 도입을 위한 장부가평가형 펀드수의 축소 등 여건 조성이 바람직

□ 시사점

- (기업금융 여건 전망)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에 대해 요주의 여신 분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량기업 대출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수익성 개선이나 재무 안전성의 개선을 감안한 자금조달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산유동화(ABS),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자금조달 기법이 요구됨

금융산업의 미래와 구조조정

임진국

99년 회고: 금융시장의 특징과 구조조정 성과

○ 99년 금융시장의 특징

- (저금리 기조와 주가상승) 98년 중반 이후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민간 경제의 과다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과 실물 경제의 회복, 증시 활황을 조성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었음
 - 年中 약 70%의 상승률을 보인 증권시장의 주요 특징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초활황세, 사이버거래 급증, 간접투자시장의 정착, 해외증시 동조화 심화, 증권사 사상 최대 흑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주가상승 → 유상증자 촉진 → 기업채무구조 개선 → 기업경영실적 호전 → 주가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남
- (대우사태로 인한 시장불안 상존) 반면, 대우사태로 인해 시장금리 급등, 주가 조정국면 등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함
 -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는 4.75%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투신사의 환매자금 조달을 위한 보유채권 매각에 따른 장기 금리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됨
 - 채권안정기금은 그동안 23조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금리안정에 기여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단기적 자금 운용에 따라 장단기 금리간 재정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이 지속됨

○ 구조조정 성과

- 99년중 건전성 감독 제도의 강화, 금융의 증권화 촉진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98년에 이어 계속 보완되었음
 - 은행권의 부실 여신기준 강화, 경영 개선 강제 조항 추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고, 코스닥 및 국채선물 시장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이 추진됨

- 은행권의 구조조정 진전

- 제일은행(뉴브리지 매각), 서울은행에 대해 해외 매각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 (은행업계의 재편 촉발) 제일은행의 매각을 계기로, 국내 은행업계는 국내외 경쟁 심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특화 등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부실 생보사의 증자 지원 및 매각과 함께 생보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운용의 건전성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입법화 조치가 추진됨
- (외자유치 진전) 부실 생보사등 제2 금융권에서도 외자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다양한 전략적 제휴) 보험사를 비롯한 은행-증권-카드사간 영업 제휴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이에 따라 금융 신상품의 개발 경쟁도 촉진되고 있음

- (투신사 구조조정) 누적되어 온 투신사의 부실이 대우사태로 인해 증폭됨으로써 1) 투신 구조조정 일정이 앞당겨져 마련되어 시행중임

- 금감위는 12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사 및 경영진 교체, 정부 출자(약 5조원 규모) 등이 진행중임
- 정부와 IMF간 합의에 따라 2000년 6월말까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예정임
- 여타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에 경영 평가를 통해 추진될 계획이 마련됨

- (부실채권 규모 여전히 막대) 금융권의 부실 채권 규모는 99년 6월말 현재 63.4조 원(총여신 560.1조원의 11.3%)이었으며,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기준의 강화, 기업 워크아웃에 따른 부실채권 추가 발생 등으로 아직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부실채권의 규모가 전체 은행권에 37.1조 원(총여신의 8.4%), 제2 금융권은 26.3조 원에 달함으로써 추가 처분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 반면, 성업공사가 발표한 부실채권 매입 실적이 97년 11조 원, 98년 33조 원에서 99년 8월말까지 6.4조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1) 투신사의 구조적인 부실 원인으로서는 수익률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위험부담, 경영부실로 인한 누손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및 감독 부실 등을 들 수 있음. 99년 들어서는 대우채권 및 부실의 누으로 투신사에 대한 신용위험이 커져 대량환매의 우려가 발생한 데서 투신사 문제가 표면화되었는데 대우그룹 부실과 관련된 투신사 손실은 1조 7천억 원이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자기자본 부족은 각각 1조 1,500억 원과 6,000억 원에 달함

○ 99년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

- 年中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유상증자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하반기들어 은행 차입 의존도가 증가세로 반전
 - 99년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직접금융 중에서도 유상증자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설비투자의 증가세로 다시 은행 차입이 증가세로 돌아섬
- (간접 금융)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99년 2/4분기까지 기업들은 간접금융을 조달이 5조 8천억원 감소하는 등 은행 대출을 상환해왔음
 - 그러나 3/4분기부터는 은행 차입이 증가하고 전분기에 크게 줄었던 비은행 금융 기관 차입금의 감소폭도 둔화되었음
- (직접 금융) 주식발행 및 회사채 발행의 증가로 총 36조 원을 조달하였음
 - 그러나 3/4분기부터 투신사의 수신감소에 따른 인수여력의 약화로 회사채 및 CP 발행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4조9천억 원 증가)보다 줄어든 1조원 증가에 그침
- (해외 차입)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으로 3/4분기부터는 전분기(3조 원 증가)보다 늘어난 5조 2천억 원이 증가했음

2000년도 전망

○ 구조조정 전망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모색) 금융의 증권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대형화 등이 진전될 것이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비중 증가 및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98-99년중 이루어진 정부주도의 금융 구조조정이 부실 정리에 치우쳤던 반면, 2000년부터는 금융의 인터넷 혁명과 사이버화 등 새로운 시장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금융 빅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을 50% 가까이 차지할 전망(S&P 예측)임에 따라 금융혁신과 경쟁심화, 이에 대응한 전략적 제휴와 M&A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은행권의 후순위채 발행 의무화, 2001년 예금자 보호의 축소 및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 등의 실시에 따른 시장경쟁 촉진, 나아가 정부 지분의 매각 추진에 의해 책임경영과 생존 기반 모색 등이 진전될 것임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막대한 부실채권의 효과적인 해소를 모색함과 동시에 치열한 생존 경쟁과 적지 않은 구조재편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 (은행권의 구조재편 촉발) 국내 은행의 초대형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탁부문 분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이 이루어질 전망
 - 미국-유럽-일본간의 겸업화·대형화에 의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은행업계는 대형화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짐
 - 또한, 정부 주도의 은행 대형화 및 종합금융그룹화 정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증권-카드 나아가 보험업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제휴 및 그룹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비은행 금융권의 구조재편) 겸업화와 신시장 도입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권별 M&A나 종합금융그룹화도 진전될 것임
 - 강화된 건전성 규제에 의한 감독 행정이 지속되고, 리스 및 보증보험사의 단계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제2금융권의 주식 상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발맞춘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생손보간 영역 수렴, 자산운용의 중요성 확대 추세, 사이버 영업의 본격 도입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투신사 구조조정) 2000년 2월 95% 환매 허용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신 구조조정의 강도가 명확해질 전망이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증시 상장 등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대우채 환매) 2000년 2월 일반 및 법인에 대한 대우채권환매(비율 95%)가 물리는 시점에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투신사간 환매비율을 조건부로 조기 확대해갈 전망이다
 - 투신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 강화, 경영 정보의 공시 강화, 그리고 투신사의 상장 작업, 수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한 고객 보호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2000년부터 금융업간 겸업 및 겸영이 금융권별 핵심 업무를 최소한으로 정의함으로써 투신사의 업무 영역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
- (채권 시가평가제도) 2000년 6월말 이후 전면적인 채권시가평가의 도입에 앞서 제반 여건의 조성과 함께 점진적인 시가평가제도의 확대가 바람직할 것임

- 시가평가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장부가평가형 펀드수의 축소외²⁾ 투자자의 인식전환 등의 선행조건들이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국채시장의 활성화 및 채권 유통시장의 정비,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도 제고, 시가평가 전문회사의 육성,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편입비율 제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신탁수익증권 관련 세제의 정비 등의 제도적 개선도 수반되어야 함
- 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은 투신사의 주식매수기반 강화, 투신사 보유 펀드수의 적절한 조정, ABS 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주도의 금융 부실 정리 촉진) 정부 부채가 GDP의 50%에 달하여 공적 자금 투입 대신에 민간 자원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지향
 - 추가적인 은행등 금융권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공적 자금의 투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나, 재정적자 부담을 의식하여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임
 - 개별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워크아웃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조성, 리스 금융이나 ABS 발행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예상

기업금융에 주는 시사점

○ 2000년 기업금융 여건의 전망

- 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에 대해 요주의 여신 분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간 자금조달의 양극화(우량기업 대출 편중)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일단락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분의 조기 회수 및 추가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가 등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은 애로를 겪을 전망
 - 반면 간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양극화 현상 심화로 부실 기업의 퇴출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자산 및 매출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방법인 ABS,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 금융 기법의 도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11월 15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의 시가평가 실시해 왔으나, 투신사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금리변동에 따른 장부평가형 펀드에서의 손실부담을 그동안 투신사가 부담해왔으며 이로 인해 투신사의 경영안정성 유지될 수 없었음

-
- (시사점) 2000년 이후부터는 국내외 자금 조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수익성 개선이나 재무 안전성 없이는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 조건을 개선시키는 자금 조달 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즉 부실 사업 부문의 조기 퇴출 및 매출확대 보다는 수익성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자금조달 보다는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안, 즉 유·무상 증자, 자산 유동화 증권(ABS),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 자금 조달 기법이 정착화될 필요가 있음

(jkdin@hri.co.kr ☎ 724-4018)